

Daily Auto Check

2020.11.17(Tu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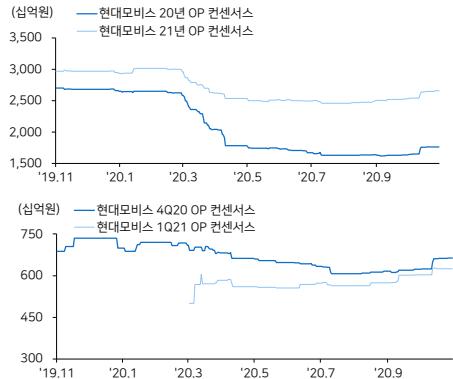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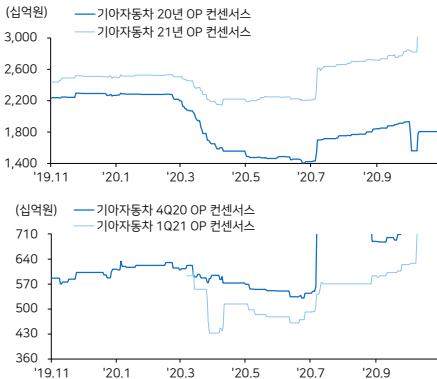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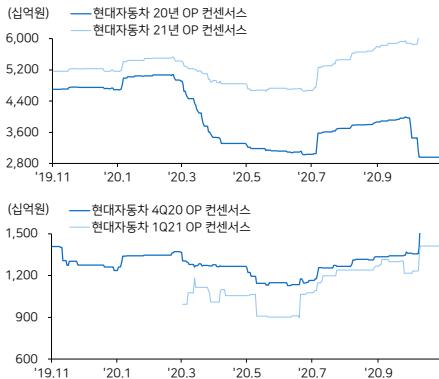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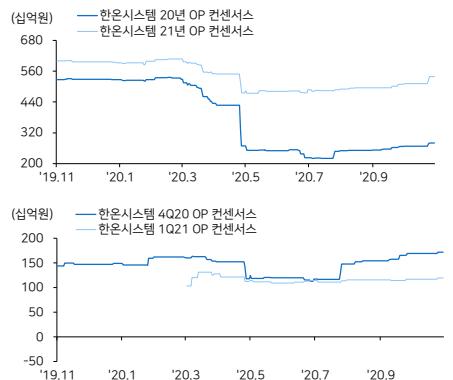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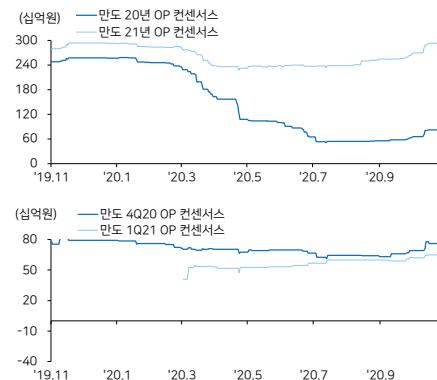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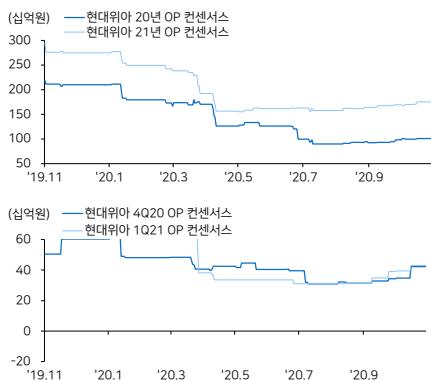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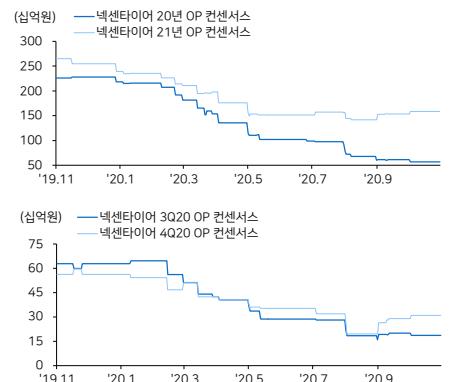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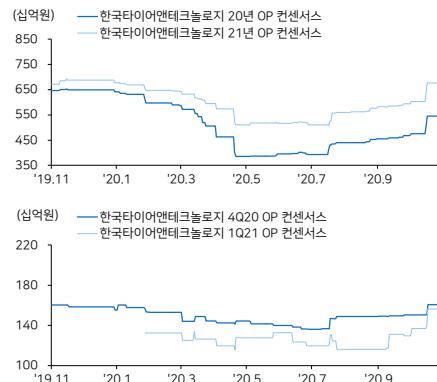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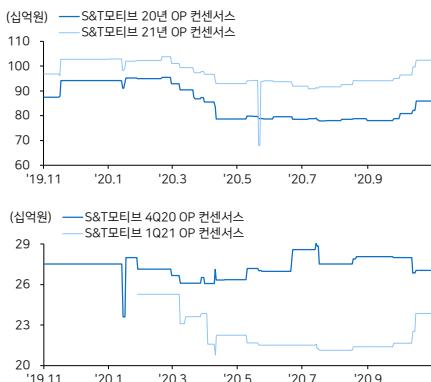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자율주행 파트너 '오로라', 우버 자율주행 자회사 인수 추진(더글루)

미국의 신생 자율주행 기업 오로라(Aurora)가 우버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오로라는 현대차그룹이 직접 투자한 자율주행 기술개발 파트너인 만큼 이번 협상이 현대차그룹에 기밀 영향도 관심을 끌.

<https://bit.ly/2lzoXwp>

'루쓰룸 파격적이다' 기아차, 신형 스포티지(NQ5) 포착, 내년 상반기 출시 (M오토데일리)

기아차의 간결 준중형 SUV 차세대 '스포티지(NQ5)'가 해외에서 새롭게 포착. 해외 자동차 전문매체 Motor1에 따르면, 기아차가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현대차그룹과 협력업체인 노르트슬라이피에 서킷에서 5세대 신형 스포티지의 프로토 타입 테스트 모습이 목격됨.

<https://bit.ly/2UvNOVp>

'엘리엇 학습효과' 다양성 확보 시동 (더글루)

엘리엇 사태 이후 사외이사들은 금융 및 자본시장 전문가로 채워지는 부문 위기, 재계 관계자는 '엘리엇 사태를 겪으며 외국인 주주의 중요성을 깨달은 현대차가 면호사 및 교수 일색이던 사외이사진에 변화를 준 것'이라고 설명.

<https://bit.ly/38Q76Ci>

현대차·한화, 드론택시 등 글로벌 UAM 시장 선점 경쟁 예고 (대한경제)

현대자동차와 한화가 드론택시(에어택시) 등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일단 현대차와 한화시스템은 정부의 오는 2025년 상용화 목표에 맞춰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자 역할을 집중한다는 각오다.

<https://bit.ly/3ICzXXf>

기아차, 中 판매 6개월 연속 증속(아시아경제)

기아차가 중국에서 코로나19 위기를 헤쳐 6개월 연속 지난해 월간 판매량을 웃드는 성적을 올렸음. 1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아차의 현지 합작법인 동평위에다기아의 중국 판매실적은 2만454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8% 늘었음.

<https://bit.ly/2UzTid2>

기아차 쏘넷, 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도 출격 체비(더글루)

기아차동차의 소형SUV '쏘넷'이 인도네시아에서 출시됐다. 또한 베트남 출시도 검토하는 등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 수위를 높이고 있음. 16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인도네시아에서 쏘넷을 공식 출시. 인도네시아 모델은 총 6가지 트림으로 판매됨.

<https://bit.ly/36BUxHc>

현대차 50개 부문 협업 스타트업 모집…12월 27일까지 접수 (뉴스원)

현대자동차그룹은 오픈노베이션 플랫폼 제로원 엑셀러레이터의 스타트업 공개 모집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 제로원 엑셀러레이터는 현대차그룹 소속 혁신팀이 직접 발제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프로그램.

<https://bit.ly/3ICdlnV>

현대차 중고시장 진출 청신호?…동반위 '차종제한 등 논의' (국민일보)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현대자동차 매매시장 진입에 대해 '결국 얼마만큼의 물량을 (배정할지) 중고차 업자들과 논의해야 하느냐 쪽으로 갈 것 같다'고 밝힘.

<https://bit.ly/2UuDUs>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